



삼일회계법인

미국-이란 군사 충돌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삼일PwC경영연구원 | Issue Brief

March 2026



들어가며

“Military action carries the risk of igniting a chain of events that no one can control.”

(군사 행동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연쇄적 사태를 촉발할 위험을 내포한다.)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2026.02.28, 안보리 발언)

2026년 현재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상시화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해상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단일 사건만으로도 전 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연쇄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제조업 기반 위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대외 의존도는 외생 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구조적으로 높이며, 중동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충격의 전이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약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4%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원유 및 LNG 수송 차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조원가 상승과 물가 압력 확대를 통해 기업 수익성을 훼손하는 한편, 해상 운임 상승, 보험료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

미국-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복합적인 불확실성을 동반한 다층적 리스크 요인이다. 특히 중동 지역 영향력과 에너지-안보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이란을 둘러싼 국가별 이해관계,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수,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 공격과 이에 따른 확산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향후 전개 양상과 파급경로, 그리고 영향 강도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1차 충격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병목,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다층적이고 비선형적인 영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파급효과는 예상 범위를 넘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해당 충돌이 에너지, 제조, 금융, 통상, 조선 등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가 미국-이란 군사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 차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03
1. 역사적 맥락과 2026년 긴장 고조 배경	04
2. 경제적 파급 경로	09
3.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13
4. 대응 방안 및 시사점	20

Executive Summary

01

지정학적 국면의 전환과 실물 경제로의 충격 전이

2026년 2월 28일 단행된 미-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은 중동 지역에 잠재되어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순한 안보 변수에서 실물 경제 전반을 직접 압박하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이번 충돌은 일시적 무력 충돌의 범주를 넘어, 에너지·물류·금융 시스템 전반에 내재된 위험 비용(Risk Premium)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산정되는 구조적 시장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3월 2일 현재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이스라엘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물동량 감소 우려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물동량이 약 70% 급감한 상황은 지정학적 위기가 가격 변동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물리적 제약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6.9%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의 불안정성은 실제 봉쇄 여부와 무관하게 유가보험료·해상 운임의 구조적 상향 압력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의 공급망 비용 구조가 재설정되는 방향으로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02

물류 혈액의 경화와 고환율의 재무적 증폭 효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해상 물류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그 파급 효과는 제조업 납기 지연을 넘어 기업의 운전자본을 묶어두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 홍해 사태에서 확인된 수에즈 운하 통항 급감과 희망봉 우회 항로 선택에 따른 10일 이상 리드타임 증가는, 물류 지체 그 자체보다 기업의 현금 전환 주기를 지연시키는 재무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보다 본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수준에 머무는 고환율 환경은 달러 기준으로 책정되는 에너지·물류 비용 상승분을 원화 기준으로 증폭시키는 강력한 비용 레버리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마진 방어와 운전자본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평시보다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경영 환경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03

산업군별 노출도 분석 및 수익성 영향

에너지 및 소재 산업은 원가 급등과 제품 마진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정유 업종은 원유 도입 단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원료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속도의 시차로 인해 수익성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제조 산업은 생산의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부품 조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비용 물류 수단을 불가피하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판관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동 현장 비중이 높은 건설·EPC 업종은 공기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대금회수 불확실성 등에 노출되어 원가 부담이 가중되며, 항공업종은 전쟁위험 고조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방산과 조선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안보 수요 확대라는 기회 요인이 존재하나,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병목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04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역량 제언

현 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 확보와 중기적인 위기 대응 역량의 구조적 강화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향후 72시간 내에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파생상품 헤지 포지션에 수반되는 추가 담보금 소요를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성 극대화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공급망 관리 모델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 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된 현재의 경영 환경에서 위기 대응 역량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고 정책의 재정립과 조달 네트워크의 다변화를 포함한 전방위적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1. 역사적 맥락과 2026년 긴장 고조 배경

1. 2026.02.28 미-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2026년 2월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존의 긴장 국면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군사행동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이른바 '그림자 전쟁'의 종식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 직접적인 무력 대치가 현실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사태의 본질은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와 해상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 비용(Risk Premium)이 전방위적으로 재산정되는 구조 변화에 있다. 특히 3월 2일 현재, 이란의 보복 공격에 따른 미군 및 이스라엘군의 사상자 발생과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의 70% 급감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물리적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 1979년 이후 미-이란 적대 구조의 형성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구조적인 적대 관계로 전환되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 간 외교적 협력은 사실상 단절되었으며, 이후 관계는 상호 불신을 기반으로 한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립 구도로 고착화되었다. 지난 40여 년간 양국 간 갈등은 전면전보다는 경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주요 수단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2015년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을 통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합의는 이란의 핵 개발 제한과 서방의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완충 구조'를 형성한 사례였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탈퇴와 제재 재개로 이러한 외교 기반은 붕괴되었으며, 양국 관계는 다시 제재 중심의 압박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후 미국은 금융-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원유 수출과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한편, 역내 동맹국과의 공조 및 해상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압박 수단을 다각화하였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2019년 이후 우라늄 농축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핵 개발 역량을 확대하였고, 2023년 이후에는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증가와 기술 고도화가 병행되면서 핵 프로그램이 질적·양적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양상도 변화해 왔다. 군사적 충돌은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수준에 머문 반면, 보다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 수단은 금융 제재, 결제 통제, 해상 운송에 대한 압박이었다. 특히 에너지 수송과 금융 거래에서 갈등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은 군사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및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확장되었다.

한편, 제재와 군사적 억제가 결합된 압박 구조 속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상시화되었다.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와 이에 대한 보복 공격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미군의 중동 배치 확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비공식 충돌,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등이 이어지며 긴장 상태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관련 시설 및 군사 거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억제와 긴장 관리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옵션 검토, 이란의 보복 가능성, 역내 군사력 재배치 등이 맞물리며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미·이란 갈등은 단순한 군사적 대치에 그치지 않고, 제재·금융·에너지·해상 운송이 결합된 복합적인 압박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제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제재가 강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결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해상 보험 조건은 보수적으로 변화하며, 선적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동일하게 재현되며, 기업의 거래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미-이란 갈등의 구조적 진화

핵합의 붕괴에 따른
미국-이란 간 긴장 재점화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에
따른 압박 구조 강화

이란 핵개발 가속에 따른
위협 증대

제재·군사 억제 병행에
따른 충돌 리스크 고착

핵개발 임계 접근과
정치·군사적 압력으로
실제 충돌 현실화

외교 기반 안정 구조에서 제재 중심 압박 구조로 전환

-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체결로 핵개발 제한과 제재 완화 간 교환 구조 형성
- 그러나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적 탈퇴와 제재 재개로 외교적 완충 장치가 붕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갈등 구조가 재형성됨

경제 제재 중심의 대이란 압박 체계 본격화

- 미국은 JCPOA 탈퇴 이후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 금융·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이란의 외화 유입·원유 수출을 제한
- 동시에 역내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해상 안보 협력 및 제재 이행 압박을 병행하며 대이란 압박 수단을 다각화

핵무기 임계점 접근 가능성 증가 및 군사적 대응 압력 확대

- 2019~2021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기존 3.67%에서 20%, 이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핵개발 역량을 빠르게 확대
- 2023년 이후에는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증가와 함께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지속되며 핵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진전이 병행

제재·군사 억제가 결합된 압박 속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시화

-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 2020년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및 보복 공격 등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사건 발생
- 이후 미군 중동 배치 확대, 이스라엘-이란 간 비공식 충돌 지속, 역내 안보 협력 강화 등 압박 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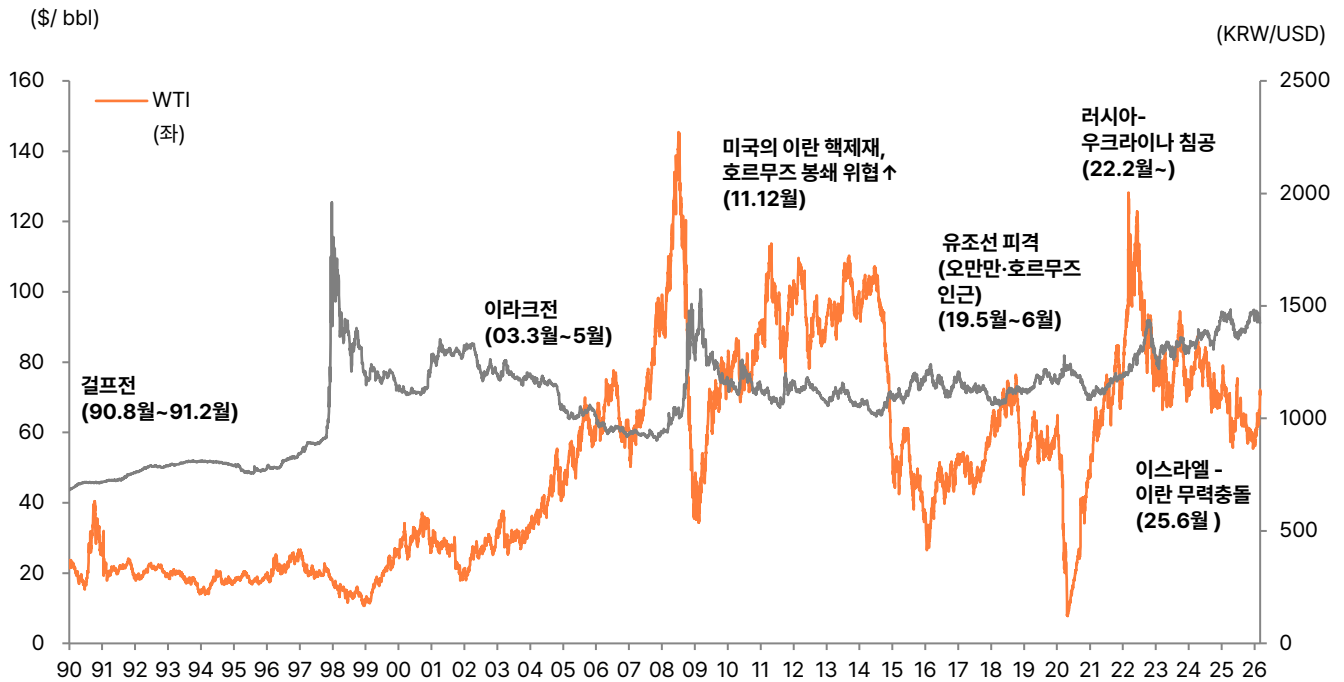
실제 충돌 현실화 및 정치·군사 변수 결합에 따른 확전 리스크 상시화

- 2025년 이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 확대와 핵무기 개발 임계점 접근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미국 및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 압력이 지속적으로 고조
- 이러한 긴장 누적 속에서 2026년 2월 말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발생하며, 갈등이 현실화된 충돌 국면으로 전환
- 역내 군사 긴장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 확전 가능성이 내재된 불안정 상태로 진입했으며,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과 경계 심리도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3. 해상 요충지의 전략적 중요성과 해상 물류 혈액의 위기

전략적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경로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 상황은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한국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병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Quantwise, Investing.com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연장 약 160km, 최협부 폭 약 33km의 해상 통로다. 초대형 유조선(VLCC)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로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해상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일평균 약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6.9%에 해당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동량 감소 우려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적인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르무즈의 위기는 반드시 '전면 봉쇄'가 아니더라도, '간헐적 교란'만으로도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다. 유조선의 항로 변경, 전쟁위험 보험료의 폭등, 선주들의 항행 회피 결정은 물리적 봉쇄 없이도 공급망 비용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이란이 과거부터 통항 위협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선례는, 이 해협의 안정성이 단순한 안보 이슈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위험 비용(Risk Premium)을 재산정하는 결정적 변수임을 의미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 및 전략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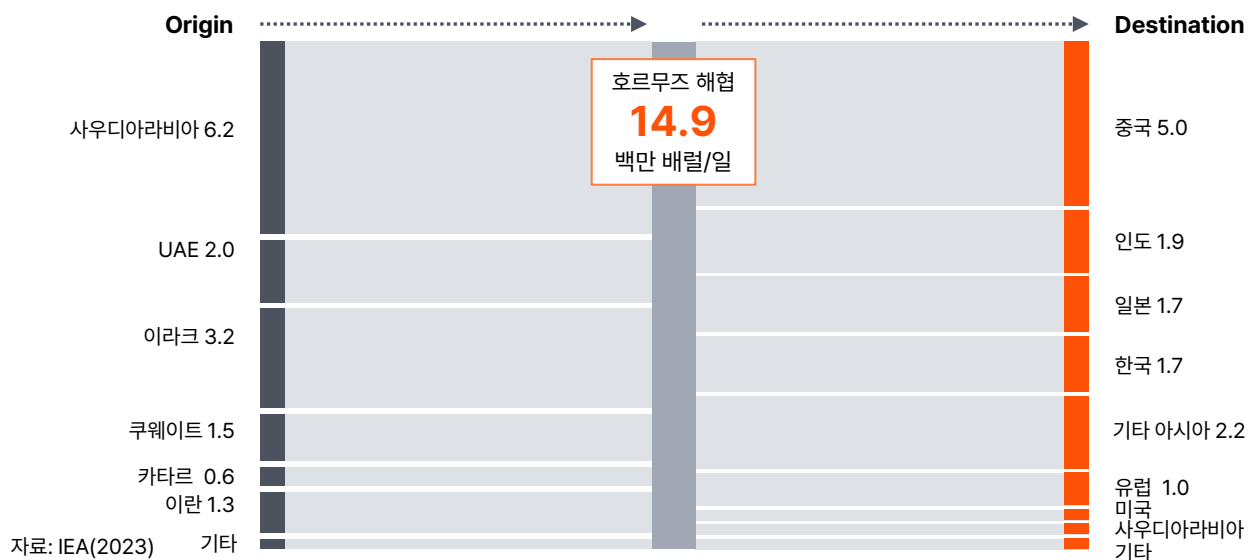
자료: Google, 삼일PwC경영연구원

이러한 해상 요충지의 불안정성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요약된다.

가격 경로	실제 물량 감소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물 시장은 공급 차질 우려를 가격에 선반영한다. 유가 상승은 정유, 화학, 발전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원가를 직접 압박하며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물류 경로	보험료 할증과 항로 우회는 운임 폭등과 리드타임 지연으로 직결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운전자본 경색을 야기하며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거래 경로	긴장 고조는 금융기관의 위험 인식을 보수적으로 변화시켜 결제 및 담보 조건을 강화한다. 이는 실물 거래의 속도를 늦추고 산업 전반의 운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이 해협의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원/달러 1,450원 안팎의 고환율 환경은 달러로 책정되는 에너지와 물류 비용의 상승분을 원화 기준으로 배가시키는 비용 촉매가 되고 있다.

2023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량 (단위: 백만 배럴/일)



2. 경제적 파급 경로

2026년 2월 28일 군사적 충돌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일 변수가 아닌 에너지, 물류, 금융, 제재, 운영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충격의 형태를 띤다.

미국-이란 군사충돌의 경제적 파급 경로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과거 중동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이벤트가 단기에 그쳤던 경우, 유가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금융시장 충격은 일시적 영향에 그쳤으며 이벤트 소멸 이후 빠르게 정상화 되었다. 반면 중동 무력충돌이 장기화되었을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 공급망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벤트 장기화 과정에서 대안 발굴하거나 전반적인 경기 현황에 따라 글로벌 자산 가격 변동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거 중동 무력충돌 시 글로벌 자산가격 변동

이벤트	유가(WTI)	금 가격	글로벌 주식	환율(달러/안전통화)	한국 금융시장
1990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1차 걸프전 ('90.8 ~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공 직후 약 15달러대 → 40달러까지 2배 급등 실질 전쟁 개시 이후 빠르게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전쟁 우려로 400\$/oz 상회 안전자산 선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공 직후 글로벌 증시 급락 전쟁 단기 마무리 예상에 따라 '91년 초부터 빠르게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러 약세+금 강세 일부 기간에는 미 연준 완화 기대와 섞여 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피 단기 급락 후 회복 고유가로 항공·해운·화학 부담, 정유·조선 (중동 플랜트) 상대적 강세
2003 이라크전 ('03.3 ~ '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30 달러대 상승 → 개전 후 유가 하락·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380달러/온스대에서 변동 dot-com 버블 붕괴 이후 회복 국면과 겹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전 전 불확실성으로 증시 약세 개전·단기 승전 전망이 확실해지며 '전쟁 랠리'로 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회피기에 달러 약세/엔·유로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전 초기 코스피 -2~3%대 조정
2011-12 이란 핵제재, 호르무즈 봉쇄 위협 ('11.12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봉쇄 위협·아랍의 봄 영향 90\$대에서-> 110\$까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월 금 가격 사상 최고치(1,900달러대) 이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재정위기와 겹치며 변동성 ↑ 경기 둔화·위험회피 구간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통화(엔, 프랑) 강세 달러는 유럽위기 국면에서는 상대적 안전통화 역할도 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고유가 타격(항공·조선·화학 부담), 정유는 정제마진·재고효과로 실적 호조 구간 다수 환율은 1,050~1,200원대 박스권
2019 유조선 피격 (오만만·호르무즈 인근) ('19.5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당일 일시적 상승 단기 이벤트이자 그 이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반응 제한적 단기 안전자산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증시는 지정학 뉴스에 단기 흔들림 이후 빠르게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러·엔·스위스프랑 등 안전통화 선호로 단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 단기 이벤트로 규모가 작아 충격은 제한적
202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공 초반 WTI 100\$ 상회, 추후 130\$/bbl에 육박 팬데믹 후반, 엔데믹으로 이어지며 러-우전쟁 영향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가격 당시 당일 급등, 2020년 이후 최고치 이후 2022년 재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미국 동반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직후 달러화 강세 안전 통화 전쟁 초반 강세 (엔화 및 스위스프랑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우려, 트럼프대통령 당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
2025 이스라엘- 이란 무력충돌 ('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의까지 유가 급등(60\$대→75\$ 전후로 상승) 실제 봉쇄로 이어지지 않으며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락, 변동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달러화 강세 기타 엔화 및 스위스 프랑의 변동은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 영향 제한적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지수 상승 견인

자료: 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1. 에너지 가격 경로: 유가·가스가격 → 물가·요금 및 기업원가

원유 도입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조달 체계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극도로 높음을 의미한다.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정유, 석유화학, 발전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원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며, 이는 제조업 전반의 마진 압박과 교역조건 악화로 직결된다.

특히 고환율 환경과 맞물린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거시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약하며 성장 여력에 유의미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개별 기업의 손익 악화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해상물류 경로: 운임·리드타임·보험료 → 재고·운전자본 및 납기·생산

물류 인프라의 교란은 실질적인 물동량 차단에 앞서 기업의 비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2024년 홍해 사태 당시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 수가 전월 대비 58.1% 감소한 사례는, 해상 리스크가 실질 가용 선복량을 빠르게 축소시키고 물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곧 운송 지연과 항로 우회로 이어지며 기업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프리카 우회 항로에 따른 약 10일의 리드타임 증가는 운전자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고 확대를 통해 현금 전환 주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물류 지체를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 금융·통화 경로: 위험회피 심리 확산 → 자본비용 상승

지정학적 긴장은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며, 위험 프리미엄의 가파른 상승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를 야기한다. 이는 기업의 직접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대출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화시켜 실질적인 유동성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류 지연 등으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자본비용 상승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에는 복합적인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4. 무역·제재·결제 경로: 거래 완결성 리스크

군사적 긴장 고조는 제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화를 수반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결제 심사 강화와 보험 인수 기준의 보수적 조정 및 보장 범위 축소와 같은 실질적인 제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계약 이행 및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거래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 지역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건설 및 EPC 기업의 경우, 대금 회수 지연이나 신용장 발급 제한 등 운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 강화에 따른 금융망의 불안정성은 계약 이행 이후 대금 수취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 전반의 현금흐름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기업의 운영 안정성과 재무적 대응 여력을 동시에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망 병목 비용 및 재무 영향 시뮬레이션

비용 항목	영향 요인 (Driver)	1,450원 환율이 초래하는 재무적 결과
변동비 (OPEX)	유가/운임/보험료 상승	원화 환산 매출원가(COGS) 기하급수적 상승
운전자본 (WC)	리드타임 +10일 증가	재고자산 급증 및 현금 전환 주기(CCC) 장기화
금융비용	신용 스프레드 확대	이자 보상 비율(ICR) 하락 및 조달 한도 축소
결제/정산	제재 및 송금 제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위험 증대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3.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

산업별 영향 총괄

이번 충돌이 산업계로 전이되는 핵심 메커니즘은 단순한 유가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적 해상 요충지의 교란은 보험료와 운임을 선제적으로 자극하고, 우회 항로 선택과 정박 대기 증가를 통해 리드타임을 연장시키며, 제재 및 결제 심사 강화는 거래의 이행 및 대금 회수의 확실성(거래 완결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경로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기업의 손익에서 먼저 변동성이 확대되며, 이후 현금흐름(FCF)은 운전자본 부담 증가를 통해 후행 압박을 받는 구조로 전이된다.

2024년 홍해 사태는 이러한 전이 구조가 추상적인 가정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1월 중순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 수는 전월 대비 58.1% 감소한 114척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운송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특히 아프리카 우회 시 발생하는 약 10일의 추가 항해(상하이-함부르크 편도 기준 약 3,800NM)는 제조업의 가용 현금이 운송 중재고 형태로 묶이게 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운전자본 경색이 가시화되는 임계 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별 · 시기별 영향 전망

산업	단기(충돌 직후)	중기	장기(구조 변화)
에너지·정유·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유가·해상운임·전쟁위험 보험료 동시 급등 원유 도입 단가 상승 → 운전자본 부담 급증, 재고 평가손익 변동성 확대 석유화학은 원료비 상승 대비 제품가 전가 지연으로 마진 급락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산 원유·납사 대체 조달 필요성 확대 → 조달비 구조적 상승 유가 변동성 상시화로 수익성 예측 가능성 저하 스팟 거래 비중 확대 시 가격 리스크 관리 부담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조달 다변화, 비축 전략 강화 등 에너지 안보 비용의 상시화 고부가·저유가 민감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압력 장기화에 따른 수요 둔화시 사이클 피크 이후 업황 조정 가능성
철강·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연료·물류비 동반 상승으로 제조원가 급등 수요 둔화 국면에서는 원가 상승과 판매 부진의 이중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 확대 장기 공급 계약 재협상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가격 리스크를 반영한 공정 혁신 및 탈탄소 투자 가속
반도체·전자·첨단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원/달러 약 1,450원) 환경에서 환율 효과는 수익성에 혼재적 영향 항공·해상 물류 차질로 납기 안정성 확보 비용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재고 조정과 맞물려 물류비·간접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 안정적 생산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고비용 물류 수단 활용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한 다중 소싱·재고 전략 상시화 지정학 리스크가 설비 투자·입지 전략의 핵심 변수로 내재화
자동차·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 운송 지연으로 리드타임 증가 및 재고·운전자본 부담 확대 특정 부품 차질 시 라인 스톱 리스크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공급처 의존 구조의 취약성 부각 멀티소싱·공급선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거점 분산, 조달 구조 재설계 등 공급망 전략의 근본적 전환 지정학 리스크가 비용 변수에서 전략 변수로 격상
해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 운송 경로 우회로 인한 톤-마일 효과 증가하여 운임 상승으로 연결 비용 증가는 Surcharge로 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원자재 운송 구조 변화(우회·장거리화)로 선복/선박 수요 구조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안보·우회 항로 상시화 시, 특정 선종(에너지 운반) 공급 사이클 변동성 확대
건설·E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 현장 보안 비용, 공기 지연, 대금 회수 불확실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조건(불가항력, 변동비 전가 등) 재정비 필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 리스크를 반영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상시화
항공·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유 가격 상승 → 비용증가에 따른 항공사 수익성 급락 소비자 비용부담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재편 및 운항 구조 변화 관광·면세·소비 심리 변동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프리미엄’이 반영된 여행 패턴의 구조적 변화
금융·환율·자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 약세 심화, 변동성 확대 → 자금조달·헤지 비용 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스프레드 확대 → 투자·고용 위축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시장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상존
조선·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실적 충격은 제한적이나, 원자재·부품 조달 리스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운송 구조 변화에 따른 LNG선 등 특정 선종 수요 증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안보 이슈 상시화 → 방산·특수선 중심의 중장기 수요 기반 강화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1. 에너지·소재

1) 정유·석유제품

정유 산업은 유가 상승 국면에서 원가 상승과 가격 전가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실질 손익은 원가 상승과 가격 전가 간 시차에 의해 결정된다. 단기적으로는 원유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환율 환경에서 물량 도입 지연이나 운송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가동률 하락이 재고평가이익 효과를 상쇄하며 손익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즉, 정유업의 핵심 리스크는 유가 수준 자체보다 안정적인 조달 확보 여부에 있다.

중기적으로는 중동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조달 다변화 역량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은 원유 도입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조달선 변경 시 발생하는 정제 수율 변화와 제품 믹스 조정이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상 요충지의 불안정으로 운임과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단순 원유 단가가 아닌 도착 단가가 실질 마진을 결정하게 된다. 가격 전가가 지연될 경우 정제마진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수요 둔화가 겹칠 경우 재고 부담이 확대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2) 석유화학·정밀화학: 원료비 쇼크와 글로벌 경쟁 구도의 재편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유가의 절대 수치보다 제품 가격과 원료비 간의 스프레드 변화에 종속된다. 납사 기반의 원가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원료비를 즉각적으로 밀어올리는 반면, 경기 둔화로 인해 제품 가격으로의 전가가 지연될 경우 수익성은 단기간에 급락한다.

이번 충돌의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원가 경쟁력 변화 가능성이다. 그동안 중국은 제재 환경을 이용해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조달하며 글로벌 화학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이 심화되어 이란산 원유의 수출 경로가 위축될 경우, 중국의 저가 원료 조달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발 저가 물량의 공세를 약화시켜 국내 기업들에 단기적인 스프레드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한국 역시 원료비 상승 압박을 동시에 받으므로 실질적인 이익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조적 과잉공급 국면에서 원가 쇼크를 마주한 한국 석유화학의 핵심 과제는 가동률 최적화와 제품 믹스 고도화를 통한 생존 전략의 수립에 있다.

3) 철강·소재: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제품 믹스 조정의 가속화

철강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공정과 경기 민감형 수요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비용 쇼크가 스프레드 축소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갖는다. 단기적으로는 전력비와 연료비, 물류비가 동시에 상승하며 원가 부담을 높이는 가운데, 수요 둔화 기조가 강해질 경우 가격 전가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손익은 판매단가 인상 여부보다 원가 상승 속도의 제어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빠른 포트폴리오 전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사와의 가격 연동 조건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탈탄소 투자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의 구조적 상승은 공정 효율화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조달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이 향후 철강·소재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2. 제조·공급망

1)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은 원가 효율성보다 공정의 '연속성'이 수익성을 결정짓는 구조를 갖는다. 미세 공정의 특성상 특정 소재나 장비의 납기 지연은 생산 라인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의 민감도를 지닌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 확산으로 인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해상 및 항공 물류비의 동반 상승은 부품의 납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항공 운송 전환 등 고비용 수단 선택을 강제하며, 이는 기업의 간접 비용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설비투자 변동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가격 대응뿐만 아니라, 납기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재고 관리 체계와 다중 소싱,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투자다. 공급망 리질리언스 확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나, 납기 신뢰도가 시장의 프리미엄이 되는 현 국면에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치환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가 상시화되면서 고객사가 단가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시장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동차·부품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일 부품의 공급 차질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급망 민감 산업이다. 2024년 흥해 사태 당시 일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물류 차질을 이유로 생산 계획을 조정된 사례는, 전략적 해상 요충지의 교란이 단순한 운임 상승을 넘어 생산 계획의 실행 자체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리드타임 증가에 따른 재고 자산 확대로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하며, 특정 핵심 부품의 조달 지연이 라인 섯다운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 및 유럽 항로 리스크가 반복됨에 따라 멀티 소싱과 생산 거점 분산 전략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운영 비용 증가와 중장기적인 리스크 완화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구조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운 운임 상승과 운송 지연이 지속될 경우 해외 생산 거점의 부품 공급 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모델 재설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망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은 광물 채굴부터 제조에 이르는 공급망이 지리적으로 길고 파편화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소재의 운송 지연이 셀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며, 수요 둔화와 겹칠 경우 가동률 하락과 재고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은 원재료 가격 변동과 수요 탄력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중기적으로는 원재료 조달선 다변화와 전략적 장기 계약 확보가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구간에서 소재 확보는 더 이상 가격 협상력이 아니라 '공급의 연속성' 확보라는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장기적으로는 소재 조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구조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셀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3. 인프라·물류

1) 해운

해운 산업은 이번 충돌 국면에서 보험·항로·선복량이 결합되어 제조업의 비용과 납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이 경로로 작용한다. 전면적인 해상 봉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간헐적인 교란과 선주들의 항행 회피가 나타날 경우 전쟁위험 보험료는 선제적으로 상승하며, 항로 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선박 회전을 저하와 실질 가용 선복량 감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의 재고 관리, 운전자본 효율성, 납기 안정성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2024년 홍해 사태 당시 수에즈 운하 통항 선박 수가 전월 대비 58.1% 감소해 114척 수준에 머물렀던 사례는, 해상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얼마나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아프리카 우회 항로 선택에 따른 약 3,800NM의 거리 증가와 10일 이상의 리드타임 지연은 선박 회전을 크게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한 해상 운임을 넘어 재고 유지 비용과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항공 운송 비용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병목 비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협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전례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산정과 운항 정책을 보수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자료: INDEXerGO

2) 건설·EPC (중동 인프라)

건설 및 EPC 기업은 중동 현장의 물리적 안전 리스크, 공기 지연, 그리고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장 유지 및 안전 관리 비용의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하며, 인력 수급과 핵심 자재 조달의 차질은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지체상금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중기적으로는 계약 구조의 정교함이 실질적인 손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불가항력) 조항의 인정 범위와 연료비 및 운임 등 변동비 전가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 결과가 기업의 현금흐름에 즉각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재 강화로 인한 금융망 교란은 기성금 수취의 지연을 초래하여 운전자본의 구조적 경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지리적 다변화와 함께,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손실 보전 조건을 명확히 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구조적인 대응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항공·관광·소비재

항공 산업은 이번 군사적 충돌 국면에서 비용과 수요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보인다. 항공유 가격 상승에 더해 여객·화물 수요 변화, 항로 리스크, 고환율 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의 실질 수익성을 좌우한다.

항공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밀접하게 연동되며,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 내외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다. 유류할증료를 통해 일부 비용을 전가할 수는 있으나,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될 경우 운임 인상 여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진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다.

중동 영공의 긴장 고조로 우회 항로를 선택하게 되면 비행 거리와 운항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료 소모량 증가, 기체 회전을 저하, 승무원 운영과 스케줄링의 비효율 등으로 이어져 단위당 고정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조정에 따른 여객 수익의 변동이 나타나고, 중기적으로는 노선 포트폴리오 재편 여부가 수익성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상 물류 차질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증가다. 전략적 해상 요충지의 교란으로 운송 지연이 10일 이상 확대되면서, 반도체·전자부품·자동차 부품 등 시간 민감도가 높은 화물의 항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홍해 사태 당시와 같이 항공화물 운임 상승은 항공사에 단기적인 수익 보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 산업의 손익은 여객 부문의 비용 부담과 화물 부문의 수익 보완 효과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항공유 가격 상승이 화물 마진을 일부 상쇄할 수 있고, 기재 운용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화물 중심의 수익 개선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위험 지역을 회피하는 노선 다변화, 유가 변동에 대응하는 헤지 전략, 그리고 화물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운영 구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금융·보험

금융 부문은 금리, 유동성,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와 위험자산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과 환헤지 비용에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될 경우 대출 심사는 보수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무역금융은 공급 조건이 강화되며 일부 영역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하며 단기 유동성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단기 유동성 부담은 금융시장의 위험 인식 변화를 통해 중기적인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 위축을 통해 실물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전쟁위험 담보와 재보험 시장의 인수 태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긴장 고조 시 보험료 상승과 담보 제한이 발생하고, 재보험 축소는 보험사의 인수 여력을 제약한다. 이는 해운, EPC, 항공 등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어 운임 상승, 항로 회피, 계약 이행 및 금융조달 리스크 확대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충돌은 자본비용 상승과 보험 인수 여력 축소를 동시에 유발하며, 자금 조달과 운송, 계약 이행 전반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위기 국면에서 구조적 수혜가 발생하는 산업군

1) 방산·우주·보안

방산은 안보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예산·조달 체계와 수출통제 환경에 의해 제약된다. 단기 실적보다 중기 수주 환경과 정책 변수가 중요하다. 지정학 리스크가 반복될수록 보안 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나, 공급망(부품·소재) 제약과 규제 리스크도 동반된다.

2) 조선·해양 (LNG선·탱커)

조선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중기 발주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산업이다.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에너지 운송이 장거리화되고 우회가 구조화되면 LNG선과 탱커 수요 구조가 변할 수 있다. 장기에는 특정 선종의 사이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대응 방안 및 시사점

1. 단기 대응: 재무적 완충 공간 확보와 변동성 관리

충격 발생 직후 약 2주간은 상황 분석과 더불어 손익과 현금흐름의 급격한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하는 구간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재무 워룸(Financial War Room)'을 가동해 기업의 가용 현금 규모와 단기 차입금 만기 구조를 정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달러 1,450원 수준의 고환율 환경에서는 외화 결제 일정과 파생상품 증거금(Margin Call)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가격과 운임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위기는 손익보다 운전자본에서 먼저 터진다. 따라서 재고 자산과 매입채무, 매출채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자금 수지의 병목 구간을 사전에 식별해야 한다. 해상 운송 계약과 보험 조건 또한 즉각적인 검토 대상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상승분이 선사의 유류 할증료 형태로 전가되는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 내 비용 부담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비용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업종별도 대응 행동이 갈린다. 중동 현장을 운영 중인 EPC 기업은 인력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현장 조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항공 및 여행 기업은 항로 리스크를 반영한 운항 스케줄과 연료 조달 조건을 신속히 재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해운은 우회 항로 등의 리스크를 반영해 선복 운영과 계약 손익 구조를 재계산해야 한다.

2. 중기 대응: 공급망 구조 조정과 계약 체계의 재설계

충격 발생 후 3개월은 '버틴다'가 아니라 '공급망 운영 모델을 바꾸는 구간'이다. 홍해 사태의 선례에서 확인되듯, 해상 교란은 단기간 내 리드타임을 연장시키고 재고를 강제로 쌓게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효율 중심 조달 체계를 안정 중심의 비상 대응 체계(JIC)로 일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유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생산 중단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재무적 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두 번째는 조달선의 다변화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대체 원유 스펙을 확보하고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제조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항로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기 위해 다중 소싱(Multi-sourcing) 전략과 생산 거점 분산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약 구조의 재설계다. 운임, 보험료, 연료비 등의 변동분을 제품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 연동형 계약 조항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기업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진다. EPC 기업은 불가항력 조항과 변동비 전가 구조를 재정비하고, 해운 및 항공 업계는 연료비 연동 구조를 공고히 하여 손익 변동 폭을 관리 가능한 수준 내로 제한해야 한다.

3. 장기 대응: 구조적 위기 대응력 확보와 전략적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이상 이벤트가 아니라 상수다. 장기 대응의 목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어떠한 충격에도 신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 및 소재 기업은 조달 다변화와 함께 에너지 집약도 개선을 위한 공정 혁신을 병행해야 하며, 화학과 철강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원가 변동성에 대한 이익 민감도를 낮춰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투자를 가속화해야 한다. 다중 소싱 체계 구축과 전력 인프라 안정화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납기 신뢰도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시장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한편,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을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등 에너지 수송 선종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방산 섹터는 안보 수요 확대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되 강화되는 수출 통제 규제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금융 부문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본시장 안정성과 신용 스프레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시사점: 외부 충격을 이기는 내부의 힘

이번 군사적 충돌은 에너지·물류·금융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며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복합 충격이다. 산업별로 영향의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원가 상승과 운전자본의 구조적 경색이라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수준에 이르는 고환율 환경에서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기업 재무제표에 보다 크게 반영되며 그 영향 또한 한층 증폭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외부 충격이 비용 구조와 현금흐름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다.

현재의 마진 구조와 현금흐름이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었는지, 리드타임이 2주 이상 연장되어도 생산과 납기 계획이 유지 가능한지, 그리고 금융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이지만, 그 충격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능력은 전적으로 내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비용 절감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위기를 단기 충격으로 관리하는 능력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승철 수석연구위원
seungchurl.k.kim@pwc.com

이희정 수석연구위원
heuij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곽호경 수석연구위원
hokyung.kwak@pwc.com

안정효 선임연구위원
jeonghyo.ahn@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3W-RP-032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